

“노텔카”와 “짱떼오스”

김 상 원 · 보건복지부 공보관실 서기관

오리의 술문화에 “노텔카”라는 말이 있다. 따라 준 술잔을 놓지도 말고, 털지도 말며, 카소리를 내지 말고 단숨에 들이켜야 한다는 주법으로, 어기면 벌주가 따른단다. 그 “노텔카”에 다시 “짱떼오스”가 붙기도 한다. 짱그리지 말고, 입에서 떼지 말며, 오래 끌지 말고 스마일(웃지) 말라는 뜻이란단다.

국세청이 집계한 지난 한해 동안 우리나라에서 소비된 술은 모두 311만톤, 원가로만 4조4천억원이나 되며 한국사람이 마신 위스키 등의 양주는 해마다 늘어나 작년에는 9천억원을 훨씬 넘었다고 하니 결국은 국제적으로 봉노릇을 한 꼴이다.

또한 과음은 고혈압, 암, 당뇨병 등의 원인으로써 이와같은 성인병에 걸리면 반신불수로 거동이 부자유스러우며 완전한 치료가 불가능하여 의료비가 많이 들 뿐만 아니라 40대 이후 장년층의 주된 사망원인이 되어 이것을 경제적인 손실로 따진다면 연간 4조5천억원이나 된다고 한다.

우리 사회의 일부에서는 아직도 음주 실력을 남성다움으로 여길 뿐만 아니라 위스키를 마시는 것이 개인의 역량으로 평가될 정도인데, 음주문화에

대한 반성과 함께 예방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첫째, 사회 교제상 또는 각종 모임의 경우 분에 넘치는 술자리를 마련해야 한다는 생각은 버려야 하며 특히 녹초가 되도록 술을 마셔야 직성이 풀린다는 사고방식은 바꾸어야 한다.

둘째, 조직의 상사들이 아랫사람들을 모아 놓고 호탕하게 술잔을 돌리면서 인화단결과 일체감을 형성해 나가는 방식은 재검토되어야 한다.

셋째, 술은 절제해서 마셔야 한다. 한계 주량을 자기 스스로 정해 그 선을 넘지 않도록 마시고 상대방의 음주량을 인정하는 습관을 길러 나가는 일이 중요하다. 같은 유교권에 속하는 중국이나 일본인들은 잔을 주고 받지 않으며 잔을 비우는 만큼 채워줄 뿐이다.

넷째, TV 등의 각종 프로에서 음주가 권장되는 행위들은 중단되어야 하며 술 광고는 금지시켜야 한다.

음주에는 몇가지 이점과 장점이 있는 바 독일의 대철학자 칸트는 “적정량의 술은 입을 경쾌하게 만들고 마음의 문을 열게 한다. 그 결과 술은 하나의 도덕적 성질, 즉 마음의 술직을 운반하는 물질이며 인간관계의 원활유요, 사회생활의

활력소요, 우정의 촉진제다”라고 하였다.

동서고금에 과음을 경계하는 명언이 허다하다. 불교의 법화경(法華經)에 나오는 명언으로 폭음은 어떤 사람을 바보로 만들고 때로는 짐승으로 만들며 심할 경우에는 악마로 만든다고 하였다. 또한 서양의 격언으로 주신(酒神)은 군신(軍神)보다도 사람을 더 많이 죽인다고 하였다.

건강을 지키면서 술을 마실 수 있는 방법으로 ▲마시더라도 성인이 된 뒤에 시작할 것, ▲1차에서 끝낼 것, ▲폭탄주를 삼가하고 술잔을 돌리지 말 것, ▲상대방의 주량을 인정해 줄 것, ▲적절한 안주를 먹을 것 등의 수칙을 지키도록 학자들은 적극 권장하고 있다.

어른들이 허영에 찬 술소비행태로 “곤드레 만드레”하면서 흥청망청 술자리를 전전한다면 우리를 자녀인 신세대들이 무엇을 느끼고 배울 것인가?

우리 어른들은 건전한 술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술에 너무 관대하지도 말아야 하고, 건수만 생겼다 하면 술집으로 향하는 버릇을 버려서 경제가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지금, 자기과시형 과소비 행태를 버리고 자중해야 되겠다. 